#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2. 9. 26 ~ 2022. 10. 2

출장지: 아일랜드 카반

출장자: 유희연

국토연구원

# 차 례

Ⅰ 출장개요 1

Ⅱ 출장일정 2

Ⅲ 수행사항 4

1. 비도시 지역개발 Pre-Conference Forum 참석 4
2. 개막식 및 본회의 6
3. 주요 아젠다: 회복을 넘어서: 원격근무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 9
4. 지역혁신강화를 위한 OECD 보고서 소개 11
5. 수석대표 필름 인터뷰 지원 12
6. 주요 아젠다: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전략 14
7. 아일랜드 총리 연설 16
8. (폐회식)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활성화된 비도시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 선언 18
9. 현장시찰 20

Ⅳ 부록

[부록 1] 제13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 참석 요청공문 22

[부록 2] 출장자 항공권 23

# Ⅰ. 출장개요

1. 출 장 지 : 아일랜드 카반(Cavan)

2. 출장기간 : 2022. 9. 26 ~ 2022. 10. 2 (4박 7일)

3.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부연구위원 | 유희연 |

4. 출장목적

□ (배경) OECD 지역개발컨퍼런스는 '02년도부터 비도시 지역의 개발전략 및 정책발전 논의, 사례·경험 공유 등을 위해 1~3년 주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회의로 개최지인 아일랜드 지역·커뮤니티 개발부 장관 및 OECD 사무부총장 공동명의로 국토부에 참석 초청장 발송(2022년 6월 17일)

□ (목적)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제13차 지역개발 컨퍼런스(OECD Rural Development Conference)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지역정책 추진방향 발의 내용을 지원하고, 각 국의 지역발전 정책 동향 파악

5. 출장효과

□ 우리나라 지역정책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역개발정책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에 기여

□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정부의 이행전략 모색

□ 향후 OECD와 우리 원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에 기여

# II. 출장일정

| 일정<br>(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업무수행내용 | 비고 |
|---|---|---|---|---|
| 9월26일(월) | 인천 | | (23:55) 인천 출발(EK 323) | -9시간 30분 |
| 9월27일(화) | | 두바이 | (04:25) 두바이 도착 | |
| | 두바이 | | (07:15) 두바이 출발(EK 161) | -7시간 55분 |
| | | 더블린 | (12:10) 더블린 도착 | |
| | 더블린 | 카반 | (15:00) 카반 도착 | - 약 2시간 소요 |
| | | | 컨퍼런스 발표 사전점검 및 회의 | |
| 9월28일(수) | OECD 컨퍼런스 회의장<br>(Rusell Hotel) | | (09:30-10:30) Pre-conference Forum<br>· 비도시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혁신의 역할<br>· OECD 원칙: 공공서비스 전달전략<br>·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모색 : 농업정책에서의 푸드시스템 | 동시세션 |
| | | | (10:45~12:15) Pre-conference Forum<br>·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통합<br>· 건강을 위한 지역영향평가 | 동시세션 |
| | | | (13:30~13:45) 개막식 | |
| | | | (13:45~15:30) 장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 보다 유연한 지역공간 구축 | |
| | | | (15:45~17:15)<br>· 기후대응: 기후의 영향과 바이오 순환경제<br>· 원격근무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br>· 지역에서의 청년층 활성화, 유치 및 유지전략 | 주요 아젠다 |
| | | | (17:15~18:15) 청년패널: 지역의 미래리더 청년 | |
| | | | (18:00~18:45) 지역혁신강화를 위한 스위스 사례 분석 보고서 | |
| 9월29일(목) | OECD 컨퍼런스 회의장<br>(Rusell Hotel) | | (08:30~10:0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인플레이션 압박과 식량안보 | |
| | | | (10:15~11:45)<br>· 상향식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br>· 지역활성화: 사람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싶은 장소만들기<br>· 배출집약적인 활동을 친환경·탄소중립으로 전환 | 동시세션 |
| | | | (12:45~14:15)<br>· 해안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블루이코노미<br>· 비도시지역에서의 교육 및 기술훈련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br>· 지역경제에서 여성의 기회 창출과 제약 해소 | 동시세션 |

| 일정 (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업무수행내용 | 비고 |
|---|---|---|---|---|
| | | | | |
| | | | (14:30~14:45) 아일랜드 총리 연설 | |
| | | | (16:30~18:00) 정리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 |
| | | | (18:00~18:30)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활성화된 비도시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 | |
| 9월30일(금) | | | (08:30~16:30) 현장시찰 | |
| | | | (17:00~19:00) 카반출발 | -약 2시간 |
| 10월1일(토) | 더블린 | | (14:20) 더블린 출발 | -7시간 25분 |
| 10월2일(일) | | 두바이 | (00:45) 두바이 도착 | |
| | 두바이 | | (03:40) 두바이 출발 | -8시간 20분 |
| | | 인천 | (17:00) 인천 도착 | |

# III. 수행사항

## 1. 비도시 지역개발 Pre-Conference Forum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2. 9. 28(수) 10:45~ 12:15 / 러셀호텔 Erne 회의실

□ 참석자

ㅇ Kate Clifford(Rural Community Network, Director, Northern Ireland, 영국), Michelle Marshalian(Regional and Rural Policy Unit, OECD), Renáta Kucerová(노동 및 사회복지부, Head of CLLD and ITI Projects Unit, 체코), Sally Shortall(뉴캐슬대학교, 교수, 영국), Terry Hyland(Cavan County Local Development, CEO, 아일랜드)

ㅇ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in Rural Communities)

ㅇ **영국 사례 발표(발표: Kate Clifford, Rural Community Network, Director, Northern Ireland, 영국)**

- 사례 농촌지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고립된 지역에 위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 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병원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간편하고 쉬운 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적 통합은 식량 부족, 이동권 제한 등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이를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은 매우 중요

ㅇ **체코 사례 발표(발표: Renáta Kucerová(노동 및 사회복지부, Head of CLLD and ITI Projects Unit, 체코)**

- CLLD/OP*Employment 2014-2021 프로젝트는 EU로부터 펀드를 받아 수행, 농촌 및 25,000명 규모의 소규모 지자체 거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4개의 펀드로 구성

  * CLLD :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커뮤니티 주도의 지역개발)
- 주요 타겟 그룹은 장애인, 장기간 실업자, 노인, 이민자, 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 다양한 action group이 만들어짐
- 본 사업이 성공하리라 예상을 하지 못했으나 예상 외로 선전하여 2023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었으며, 펀드사용을 위해 다양한 action group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등의 정보를 얻어냄, 다양한 미팅과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함.

- 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 간의 신뢰(trust)였다고 생각함.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음.
- 정책결정자에게도 책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했음. 각종 미팅과 포럼 등으로 계속되는 학습이 있었기 때문

○ **아일랜드 사례 발표(발표: Terry Hyland, Cavan County Local Development, CEO, 아일랜드)**
- 사회적 통합은 1997년부터 아일랜드의 국가적 목표로 수립하여 현재까지 중요한 국정목표로 수행 중이며, Department Social Protection(사회보호부)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 수행
- 지역 개발 관련 정책 및 전략이 세 가지 있음 : 1)Our Rural Future 2021(아일랜드 정부의 농촌지역에 대한 비전), 2)The Roadmap for Social Inclusion 2020-2025, 3)Sustainable, Inclusive, and Empowered Communities: A five-year strategy to support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in Ireland 2019-2024.
- 지역개발(local development)에 관한 아일랜드 정의는 “장소(area)기반의, 통합된(integrated), 커뮤니티 주도의(community-led)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본 정의에는 환경적 지속성과 웰빙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함
- 카반(Cavan)에는 49개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가 존재하며, 이들의 파트너십 협력이 가장 중요함. 코로나19 당시 Cavan Food Hub을 운영하여 학교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식량, 의료기구, 게임 및 오락기구 배급을 성공적으로 수행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 및 질의응답

## 2. 개막식 및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2022. 9. 28(수) 13:30 ~ 15:30 / 러셀호텔 Cranaghan 회의실

□ 참석자

- ㅇ Heather Humphreys(아일랜드 농촌·지역사회개발부 장관, 의원), Lamia Kamal-Chaoui(OECD 사무국 CFE 국장), Cecilia Matilde Lopez Montano(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Mairi Gougeon(스코틀랜드 농촌 및 도서 내각장관), Radim Srsen(체코 지역개발부 차관), Roberto Berutti(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 내각의원) 등 관계자 1,000여명
- ㅇ 국토교통부 : 권대철 중토위 상임위원(수석대표), 박기범(건축문화경관과장), 임현아·나은종(행정사무관) 등 4인
- ㅇ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 1) 개막식 개최

ㅇ **환영사 1 : Heather Humphreys(아일랜드 농촌·지역개발부 장관)**

- 코로나19로 3년 만에 본회의를 아일랜드에서 개최, 농촌지역이 처한 어려움·도전과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함, 특히 농촌과 도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시 vs 농촌이라는 시각보다는 서로 책임을 공유하고, 미스매치(mismatch)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함

ㅇ **환영사 2 : Lamia Kamal-Chaoui(OECD 사무국 CFE* 국장)**

- 농촌지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을 제공하고 농촌 커뮤니티는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중함,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새로운 것은 아님
-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주요 어려움임. 아직 농촌지역의 인터넷 접근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농촌지역은 노령화되고 있음
-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하면 이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음, 정책결정자,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농촌지역의 디지털화 가속화, 과학기술과 혁신 도입, 도시-농촌의 인프라·교육·보건 차이(gap)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싶음

*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 및 도시 센터)

2) 본회의 : 장·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 보다 유연한 지역 공간 구축

○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충격으로 인한 비도시 지역의 번영을 돕기 위한 우선순위 관련 Moderator(Heather Humphreys 장관) 질의를 바탕으로 문답식 토론으로 진행**

- (콜롬비아) 콜롬비아 농촌지역은 전쟁 발발이 빈번, 30년 간 뒤쳐진 상태, 보다 생산적인 활동 하도록 법제화(legalize)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다각화, 농촌 여성 불평등 해소 등을 위주로 농림부가 대응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위기는 계속 존재, 한편 다른 기회도 많음. 스코틀랜드는 탄소중립 및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펀딩 운영 중, 인구 감소(depopulation)로 인한 이민 증대를 위한 로드맵 구축, 양성평등(농촌 여성들의 도전과제 해결), 청년층 목소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으로 대응 중, 모든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함
- (미국)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강조하는 것(Be positive)에 동의함,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농촌으로 돌아온 인구도 있음. 미국은 농촌지역의 고품질 인터넷 환경 구축 투자, 주택 보급, 해안 및 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 (체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농촌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재택근무(home office)가 그 예임,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액션그룹 운영,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므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슬로베니아) 농촌지역 활력을 위해 청년층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함. 농촌지역에서도 불편 없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해 노력, 농업(agriculture)의 부가가치 창출 강조, 학교 건립 등 교육에도 투자, 고령층과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상이하므로 inter-generation 서비스 제공하고자 노력
- (한국) 도시와 농촌의 갭을 없애고자 지역거점(regional hub)을 조성하고자 노력,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캠퍼스 혁신타운을 조성하거나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제공 등의 사업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추진 중
- (EU) 가능한 소규모 농가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팬데믹 기간 동안 농촌에 대해 재발견함, 농촌지역에도 최소임금제도(minimum income)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으며, 농촌지역은 특히 낮음. 도시로 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인터넷 환경 제공, 임대주택 제공, 이주민 pilot program 등을 운영하여 일시적 이주자들에게도 지원정책을 제공,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농촌 간 지역(inter rural area)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기도 함

○ **비도시지역의 공동체가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다른 유형들(도시로부터 먼 지역부터 가까운 지역까지)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Moderator 질의를 바탕으로 문답식 토론**

- (콜롬비아) 다인종국가로 국토에 각기 다른 지역적 맥락을 보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스코틀랜드) EU 정책을 참고로 하여 bottom-up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각 비도시지역별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
- (미국) 미국은 Rural Partners Network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연방정부를 통해 현금 지원(fund, grant) 등을 제공함. 협력(collaboration)을 강조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체코) 국가 차원의 지역적 우선순위가 있으며, Operational Program도 운영 중
- (EU) 농촌지역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다양한 미팅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침, 도시와 농촌지역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양
- (한국) 비도시지역 성장을 위해 거점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하는 공간정책을 수립, 지방대도시는 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메가시티로 육성하고자 함. 중소도시는 차별화된 매력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강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낙후지역은 문화, 주거, 교통 등의 격차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활성화 할 것임

▲ 본회의 전 VIP 단체사진 촬영

▲ 본회의 사진

▲ 본회의 진행(아일랜드 Heather Humphreys 장관)

▲ 본회의 발언(권대철 상임위원, 국토부)

## 3. 주요 아젠다: 회복을 넘어서: 원격근무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

□ 일시 및 장소: 2022. 9. 28(수) 15:45 ~ 17:15/ 러셀호텔 Cranaghan 회의실

□ 참석자

- Tim Goodship(Head of Rural Policy, Department for Environmnet, Food and Rural Affairs, 영국, Moderator), Andres Sanabria(OECD 정책분석가), Doray Veno(Hanna Learning Center 상임이사, 캐나다), Agust Bogason(Nordregio. 연구위원, 노르웨이), Hilkka Vihinen(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교수, 핀란드) 등
-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 **OECD 연구발표 (발표: Andres Sanabria, OECD 정책분석가)**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 증가로 근로환경이 변화됨, 유연성(flexibility)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합된 모델(hybrid model)도 많아짐. 유연근무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나, 원격근무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문제 등 도전과제도 많음.
  - 원격근무로 인해 농촌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미국은 비도시지역의 우편번호 등 주소 변동이 급증, 캐나다의 경우 도심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net-outmigration)가 급격히 증가, 부다페스트(헝가리) 및 리스본(포르투갈)는 도시 주변부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도 함.
  - 원격근무가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간의 문헌연구를 종합해보면, 중장년층은 교외화, 청년층은 도심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미국), 스웨덴, 일본 등은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 다중장소성(Multi-locality) 경향성을 보임. 하지만, 원격근무가 대도시 주변지역의 농촌 지역/원거리 농촌지역에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일반화하기 어려움. 다만, 매력적인 인프라와 지리를 보유한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나 이 역시 일반화하기 어려움

- **핀란드 사례발표 (발표: Hilkka Vihinen(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교수, 핀란드)**
  - 핀란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근무가 보편화되긴 했으나, 인구의 60%가 원격근무, EU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 다중 장소성(Multi-locality) 형태로 도시와 농촌에 거주지를 보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 여가시간용 주거지(free-time residence)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증

- 가장 큰 도전과제는 농촌지역의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 농촌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적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지속가능성(환경, 사회, 문화적 측면) 등임
- 핀란드는 국가적(state)으로 한 지역에서만 고정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중장소성 개념을 여러 정책에 도입 중
- 핀란드 지자체(local authority)에서는 원격근무자들에게 지자체 유치원, 보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캐나다 사례발표 (발표 Doray Veno, Hanna Learning Center 상임이사, 캐나다)**
- 캐나다 알버타(Alberta) 주 농촌마을인 Hanna town을 사례로 하여 발표
-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상적인 시간(ideal time)을 기다리기 보다는 1)팀을 만들고(creat a team), 2)원하는 것을 계획하고(map it out), 3)비공식적·공식적 루트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tell the world)
- 본 전략을 통해 Hanna town은 지역 파트너들이 인터넷 브로드밴드에 투자에 성공

○ **노르웨이 사례발표 (발표: Agust Bogason, Nordregio 연구위원, 노르웨이)**
- 북유럽 지역은 펜데믹 기간 동안 원격근무가 주로 대도시 주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지역개발 및 계획 분야에 1)모빌리티(사람들의 일상의 이동에 변화), 2)이주(어디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 3)다중장소성(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냄)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함
- Second home에 대한 북유럽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주(migration), 모빌리티(mobility), 다중장소성(mult-locality) 등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의 원인이 팬데믹 때문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나, 각 국의 기존 정책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유추

▲ 발표 및 질의응답

▲ 회의장 전경

## 4. 지역혁신강화를 위한 OECD 보고서 소개

□ 일시 및 장소: 2022. 9. 28(수) 18:00 ~ 18:45 / 러셀호텔 Woodford 회의실

□ 참석자

ㅇ Lamia Kamal-Chaoui(OECD 사무국 CFE 국장), Giancarlo Kessler(OECD 스위스 대사), Mairi Gougeon(스코틀랜드 농촌 및 도서 내각장관), Michelle Marshalian(Regional and Rural Policy Unit, OECD), Peter Wostner(Institute of Macroeconomic Analysis an Development, 연구자, 슬로베니아)

ㅇ 국토교통부 : 임현아 사무관

ㅇ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ㅇ **모두 발언(Lamia Kamal-Chaou, OECD 사무국 CFE 국장)**

- 본 세션에서는 OECD에서 발간한 2개의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함. 1)Unlocking Rural Innovation(2022), 2)Enhancing Innovation in Rural Regions: Switzerland(2022)
- 두 보고서 모두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 농촌 환경에서 혁신(innovation)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혁신 및 공공정책의 동인이 농촌지역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지 못함.
- OECD Enhancing Rural Innovation Initiative는 농촌지역이 개발전망을 개선하고 농촌 정책을 보조금 및 부문별 접근 방식을 넘어 장소 기반(place-based)으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됨

ㅇ **Unlocking Rural Innovation(2022)(발표: Michelle Marshalian, Regional and Rural Policy Unit, 경제학자, OECD)**

- 본 보고서는 농촌지역의 혁신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에서의 혁신 현황, 혁신적인 기업가들(특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제공, 농촌지역에서의 혁신 영향 측정(평가) 등을 위해 작성
- 혁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영역 R&D, 특허 등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한 분야만 고려한 것, 스타트업이나 기업가 활동, 혹은 상품의 생산 및 생산과정에서의 향상된 비니지스 모델 역시 혁신으로 볼 수 있음
- 농촌지역의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정부 역량 부족, 서비스 비용, 지역 규제 등 장소 기반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필요
- 청년층 기업가들을 농촌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혁신에 필요, 하지만 농촌 지역 청년층 기업가들은 도시에 비해 25% 정도 적음(2019년 EU 26개국 조사결과). 농촌지역에 창업을 할 경우, 마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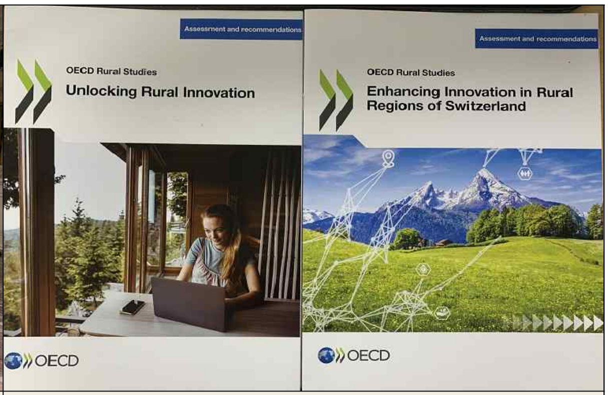
해당지역은 교육 및 학습 효과가 도시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hip)가 큰 농촌지역의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사회적 목표를 가진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며, 농촌지역의 제도적 틀, 제약요소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Enhancing Innovation in Rural Regions of Switzerland(2022)(발표: Giancarlo Kessler(OECD 스위스 대사),**

- 스위스는 높은 기업가 정신, 각종 연구소, 대학, 경쟁적인 시장, 정책 등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혁신이 높은 편, 하지만 스위스 국토 내 지역 간 혁신의 정도 차이가 큼. 스위스 농촌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혁신적인 기업활동 보다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음
- 농촌지역의 규모 및 구조 및 해당 산업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인구적으로도 노령화되었고, 여성 노동자가 많음. 청년층 유입과 함께 이들 인구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프로젝트(프로그램) 별로 타겟 인구 그룹을 정한 후 훈련시켜야 함

▲ 발표 및 질의응답




▲ OECD 보고서

## 5. 수석대표 필름 인터뷰 지원

□ 일시 및 장소: 2022. 9. 29(목) 08:30~10:00/ 러셀호텔 내 촬영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권대철 중토위 상임위원(수석대표), 임현아·나은종(행정사무관) 등 3인

○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진행)

○ **비도시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3가지 위협**

- 비도시지역이 당면한 위협은 인구감소, 고령화, 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함. 청년층의 도시선호

현상으로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노인들만 남아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해 문화·의료·교통·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

○ **비도시지역 공동체의 미래기회는 무엇인지? 정책 3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 비도시지역은 지역만의 고유가치 살리는 것이 미래의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모여들고, 고유가치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임.
- 윤석열 정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층을 비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 청년층이 비도시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안정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정부와 국가가 함께 규제완화, 산업단지 조성,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 비도시지역은 인구유출, 인프라 낙후 등으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오랜시간 형성해온 역사와 문화가 있음. 각 지역만의 가치가 있고, 이를 관광, 농식품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필름 인터뷰(권대철 상임위원, 국토부)

▲ 필름 인터뷰(권대철 상임위원, 국토부)

## 6. 주요 아젠다: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의 전략 : 배출집약적인 활동을 친환경·탄소 중립으로 전환

□ 일시 및 장소: 2022. 9. 29(목) 10:15 ~11:45 / 러셀호텔 Woodford 회의실

□ 참석자

- Ahmet Şimşek(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 Deputy General Director, 터키), Andrew Johnson(Clean Energy Districts of Iowa, Executive Director, 미국), Heino von Meyer(International PtX Hub, Head Sustainability and Global Networks, 독일), Inese Suija-Markova(Cesis Municipality, Council Member, 라트비아), Dara Ó Molloy(Comharchumann Fuinnimh Oileáin Árann Teoranta (CFOAT) Aran Islands Community Energy Cooperative, Chairperson, 아일랜드), 박기범 과장(건축문화경관과장, 국토부) 등
-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독일 사례발표(발표: Heino von Meyer, International PtX Hub, Head Sustainability and Global Networks, 독일)**
  - 본 세션의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임
  - 하지만, 농촌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변화(예: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SDGs을 기본 개념틀로 하여 PtX에서는 EESG* 지속가능성 framework를 기획

    * EESG: Environmental, Economic, Governance, Social
- **미국 사례발표(발표: Johnson, Clean Energy Districts of Iowa, Executive Director, 미국)**
  - 미국 아이오와(Iowa)주는 2019년 청정에너지(clean energy) 멤버주로 선정됨. 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부처인 USDA*가 시행하는 USDA-RD REAP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 REAP(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은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EE) 및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RE)를 위해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소규모 농가 또는 기업이 대상, 농산물 생산자가 에너지 감사(auditing)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하기도 함
  - Clean Energy District 사업에서 활용한 "Universal Local 모델"은 지역 기관이 주도가 되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고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전환이 정부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지역

측면에서는 투자와 번영을 야기하므로 win-win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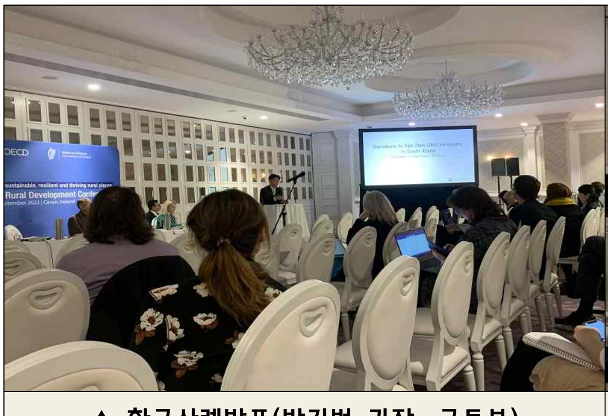
-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시장전환, 공공개입, REAP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CED(Clean Energy District)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 **한국 사례발표(발표: 박기범 건축문화경관과장, 국토부)**

- 한국의 Green Building Policy(녹색건축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1)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3)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함.
- **(신규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에너지 소비 요소별 설계기준 강화,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 기준 도입 및 강화,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으로 이루어짐
-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
-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저탄소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bottom-up approach를 하고자 노력함

○ **아일랜드 사례발표(발표: Dara Ó Molloy, Comharchumann Fuinnimh Oileáin Árann Teoranta (CFOAT) Aran Islands Community Energy Cooperative, Chairperson, 아일랜드)**

- 아일랜드 Aran섬은 아일랜드에서도 고립된 지역으로 3개의 섬으로 구성, 에너지 전환을 위해 Aran Island Alternative를 운영·시행
- 3개의 목표 가지고 협력(Co-op)을 이루어 냄, 1)독특한 자연환경을 보호, 2)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3)자신감 회복
- Co-op 협력구조는 커뮤니티, 비영리조직, 아란섬 지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하기 위해 1)오래된 가옥 개조(retrofitting) 2)난방 및 교통에 전기에너지 사용(electrification), 3)재생에너지 생산(generation) 전략을 사용함.



▲ 한국사례발표(박기범 과장, 국토부)

▲ 발표 및 질의응답

## 7. 아일랜드 총리(Micheál Martin) 연설

□ 일시 및 장소: 2022. 9. 29(목) 14:30 ~18:30 / 러셀호텔 Cranaghan 회의실

□ 참석자

ㅇ 주요 패널 : Heather Humphreys(아일랜드 농촌·지역사회개발부 장관, 의원), Micheal Martin(아일랜드 총리), Mairi Gougeon(스코틀랜드 농촌 및 도서 내각장관), Radim Srsen(체코 지역개발부 차관), Roberto Berutti(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 내각의원) 등 관계자 약 1,000여명

ㅇ 국토교통부 : 권대철 중토위 상임위원(수석대표), 박기범(건축문화경관과장), 임현아·나은종(행정사무관) 등 4인

ㅇ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ㅇ **아일랜드 및 OECD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 아일랜드는 1961년 OECD 창립멤버로 다자주의 및 국가 공동체로서 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약속을 반영
- OECD 컨퍼런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고, 증거 기반(evidence-based)으로 운영, 개방적이고, 세계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조직으로 유지되는 것음 매우 중요함

ㅇ **농촌 지역개발**

- 아일랜드의 역사를 통해 농촌생활 및 농촌 지역이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 농촌지역이 번성하고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하지만, 단일한 농촌경험은 없음. 모든 마을, 지역사회는 다른 도전, 요구, 기회를 보유하고 있음. 동정과 연대가 특징인 농촌개발 논의에서 벗어나 낙관주의와 기회로 정의되는 논의로 옮겨가야 함.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함
- 일반적인 농촌에 관한 내러티브는 농촌과 도시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임. 하지만, 경제공급망, 관광, 음식, 문화활동, 가족관계 등 우리가 일하고, 살고, 연결되는 방식에 농촌과 도시 지역사회가 얽혀있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아일랜드 농촌사회 기여 및 인플레이션 압박**

- 아일랜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대응은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대응으로 이루어짐, 우크라이나 이웃을 위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음
- 전쟁으로 인해 가스 및 전기가격 인상이 불가피, 경제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 큰 영향을 미쳐, 생활비 압박이 커질 것,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3년 예산의 ‘cost of living(생활비)’ 항목에 반영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를 목도, 기후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일하고, 여행하고, 땅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필요로 함.
- 아일랜드 정부 프로그램은 기후행동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모든 작업의 중심에 두고 있음. 탄소 배출 감소를 법률로 설정하고, 입법화하는 등 법적인 프레임워크도 마련, 예산을 마련하고, 부문별 배출량 한도 등을 공개하여 달성하고자 노력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no body is left behind)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대체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환에 대응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임. 정부는 국가정의전환기금을 마련하여 아일랜드 Midlands지역(농촌지역)을 지원하고 있음

**▲ 연설 전 환담(권대철 상임위원, 국토부)**

**▲ 총리 연설**

## 8. (폐회식)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활성화된 비도시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

□ 일시 및 장소: 2022. 9. 29(목) 16:30 ~18:30 / 러셀호텔 Cranaghan 회의실

□ 참석자

- 주요 패널 : Heather Humphreys(아일랜드 농촌·지역사회개발부 장관, 의원), Yoshiki Takeuchi(Deputy Secretary-General, OECD), Betty-Ann Bryce(Senior Policy Analyst, OECD), Enrique Garcilazo(Head of Regional and Rural Policy, OECD), Tom Jones(President, European Rural Community Alliance), Karama Neal(Administrator,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등 관계자 1,000여명
- 국토교통부 : 권대철 중토위 상임위원(수석대표), 박기범(건축문화경관과장), 임현아·나은종(행정사무관) 등 4인
-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카반-OECD 농촌정책 로드맵(The Cavan-OECD Rural Policy Roadmap) 발표**
  - **(현재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시장에 혼란 야기, 현재 위기는 매우 복합적, 이외에도 디지털화, 기후변화, 고령화, 도시화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진행. 이러한 위기는 농촌사회에 더 치명적
  - **(공동 대응)** 하지만, 농촌지역은 독특한 자산과 비교우위(지속 가능한 삶의 질)를 통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를 가능하도록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혁신 기반 기회 활용)** 농촌 지역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앞으로 나아가기)**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 권고사항을 환영, 보고서는 농촌기업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기술 및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접근성 제한)을 인식하고 도시-농촌의 연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OECD Report on Unlocking Rural Innovation(2022)
  - **(녹색전환 활용)** 농촌 지역은 넷제로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정책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에는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존재하므로 탄소집약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농촌경제의 다양화를 장려해야 함.

    ⇒ **(앞으로 나아가기)** 지역 수준의 기후행동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농촌 지역에 부여해야 하며, 정책결정자들은 장소 기반 접근방식(place-based approach)을 옹호하는 OECD

Rural Agenda for Climate Action 보고서(2021)에서 제시된 사항을 이행해야 함.

- **(디지털화 기회 포착)** 광대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운로드 속도에는 도시-농촌 간 속도 격차가 있음. 농촌 지역은 인터넷을 통한 기술과 지식 습득, 전자 서비스(예: 원격의료)를 이용, 원격근무, 민주주의 참여 등에 제한을 경험하고 있음.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됨
- **(에너지 위기 대처)**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붕괴는 농촌 지역이 얼마나 에너지에 취약한지 보여줌, 평균소득이 낮기 때문, 에너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공급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 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세제 개혁 조치, 취약계층 지원, 농촌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 등이 필요

  ⇒ **(앞으로 나아가기)** 농촌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위기 영향 및 농촌사회의 넷제로 전환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 **(인구변화)** OECD 회원국의 농촌 지역사회는 도시보다 빠르게 쇠퇴, 고령화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는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수요를 증가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시장은 사라져야 함. 농촌 지역의 젊은 이주민 유치, 주택 및 언어 지원을 통해 인구통계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나아가기)** 농촌의 필요, 상황, 기회가 적정하게 고려된 정책이 필요함.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WHO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

○ **폐회사: Heather Humphreys(아일랜드 농촌·지역개발부 장관)**

- OECD 지역 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 이틀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게 됨. 정부는 지역사회가 회복력을 갖도록 지원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아일랜드 최우선의 과제임. 농촌지역이 활기차고 번영하며, 다양성이 포용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기회의 장소로 여겨지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함. 이러한 희망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함. 오늘 합의한 카반 OECD 농촌정책 로드맵(The Cavan-OECD Rural Policy Roadmap)이 그 증거임.
-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함께 협력해야 함. 농촌의 산업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원동력임
- 지역사회 사업과 원격근무자에게 다양한 농촌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드리고 농촌지역 및 지역사회를 위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회를 포착해야 함.
-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농촌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 지역사회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잘 알 수 있음. 이를 위해 농촌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inclusive approach)이 필요하며,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 정리 및 카반-OECD 농촌정책 로드맵 발표

▲ 폐회사(Heather Humphreys 장관)

## 9. 현장시찰

□ 일시 및 장소: 2022. 9. 30(금) 08:30 ~ 16:30

□ 참석자

- Betty-Ann Bryce(Senior Policy Analyst, OECD), Andres Sanabria(OECD 정책분석가), Terry Hyland(Cavan County Local Development, CEO, 아일랜드) 등 다수 참석
- 국토연구원 : 유희연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Ballyhaise Agricultural College 방문
  - Teagasc는 농업·식품산업, 농촌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연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Ballyhaise 농업대학은 Teagasc에서 운영하는 4개 전문대학 중 하나
  - 아일랜드 카번에 위치하며, 약 400여명의 학생이 수학 중, 대학 농장은 약 50헥타르의 삼림지대가 있으며, 농장에서는 낙농업, 기타 소, 양,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학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 및 수질 향상을 위해 환경적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음

- Corlea Trackway 및 Mid-Shannon Wilderness Park, Longford
  - Corlea 트랙은 기원전 148년 철기시대 참나무 도로로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큰 도로 중 하나임. 세대를 걸쳐 현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성, 레크레이션, 관광 등 Shannon Wilderness

Park로 활용되고 있음

- 일명 Dane's Road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아일랜드 Longford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는 평평하고 트인 풍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철기시대에는 늪지대로 자작나무, 버드나무 등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있었으며 통행이 불가능했음.

○ Kilbeggan Distllery(증류소) Co Westmeath

- 1757년 건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증류소 중 하나로 아일랜드 Westmeath 카운티 Kilbeggan의 Brosna강에 위치해 있으며, Beam Suntory가 소유주임
- 다른 아일랜드 양조장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 1950년대에는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양조장을 개조하여 2007년 증류를 재개함.

▲ Corlea trackway 사진

▲ Kilbeggan Distllery(증류소)

[부록 1] 제13회 OECD 비도시 지역개발 컨퍼런스 참석 요청 공문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수신 국토연구원장
(경유)
제목 제13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 회의 참석자 추천 요청

1. 제13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가 '22.9.28(수) ~ 30(금), 아일랜드 카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회의 참석자를 9.19(월)까지 추천하여 회신(silver26@korea.kr)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의제 검토 및 대응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속 | 성명 (국·영문) | 직급 (국·영문)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 | 이메일 | 비고 |
|---|---|---|---|---|---|
| | | | | | |

붙임 제13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 회의 개요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사무관대우 김선영 행정사무관 나은종 지역정책과장 전결 2022. 9. 16. 장순재
협조자
시행 지역정책과-2193 (2022. 9. 1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redacted] / 비공개(5)

[부록 2] 출장자 항공권 : 유희연 부연구위원

현대아산주식회사

[redacted]

Provided by TOPAS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 2022년 09월 19일

| 승객성명 Passenger Name |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
|---|---|---|
| YOU/HEE YOUN MS | 1763332843677 | [redacted] |

**1**

| 출발 | | 도착 | 항공편 |
|---|---|---|---|
| 서울 ICN<br>Incheon international<br>Terminal No: 1<br>26SEP22(월)23:55 (Local Time) | → | 두바이 DXB<br>Dubai intl<br>Terminal No: 3<br>27SEP22(화)04:25 (Local Time) | EK0323<br>예약번호: [redacted]<br>Operated by EK EMIRATES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EMIRATES 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예약등급 Class | Y(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 9시간 30분 |
| 운임 Fare Basis | YXRZFKR1/HUJ3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 - | | |
| 수하물 Baggage | 35K | 기종 Aircraft Type | AIRBUS A380-800 | 좌석번호 Seat Number | 44C |

**2**

| 출발 | | 도착 | 항공편 |
|---|---|---|---|
| 두바이 DXB<br>Dubai intl<br>Terminal No: 3<br>27SEP22(화)07:15 (Local Time) | → | 더블린 DUB<br>Dublin international<br>Terminal No: 2<br>27SEP22(화)12:10 (Local Time) | EK0161<br>예약번호: [redacted]<br>Operated by EK EMIRATES |

| | | | | | |
|---|---|---|---|---|---|
| 예약등급 Class | Y(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 7시간 55분 |
| 운임 Fare Basis | YXRZFKR1/HUJ3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 - | | |
| 수하물 Baggage | 35K | 기종 Aircraft Type | BOEING 777-300ER | 좌석번호 Seat Number | 18H |

**3**

| 출발 | | 도착 | 항공편 |
|---|---|---|---|
| 더블린 DUB<br>Dublin international<br>Terminal No: 2<br>01OCT22(토)14:20 (Local Time) | → | 두바이 DXB<br>Dubai intl<br>Terminal No: 3<br>02OCT22(일)00:45 (Local Time) | EK0162<br>예약번호: [redacted]<br>Operated by EK EMIRATES |

| | | | | | |
|---|---|---|---|---|---|
| 예약등급 Class | Y(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 7시간 25분 |
| 운임 Fare Basis | YWRZFKR1/HUJ3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 - | | |
| 수하물 Baggage | 35K | 기종 Aircraft Type | BOEING 777-300ER | 좌석번호 Seat Number | 18C |

**4**

| 출발 | | 도착 | 항공편 |
|---|---|---|---|
| 두바이 DXB<br>Dubai intl<br>Terminal No: 3<br>02OCT22(일)03:40 (Local Time) | → | 서울 ICN<br>Incheon international<br>Terminal No: 1<br>02OCT22(일)17:00 (Local Time) | EK0322<br>예약번호: [redacted]<br>Operated by EK EMIRATES |

| | | | | | |
|---|---|---|---|---|---|
| 예약등급 Class | Y(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 8시간 20분 |
| 운임 Fare Basis | YWRZFKR1/HUJ3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 - | | |
| 수하물 Baggage | 35K | 기종 Aircraft Type | AIRBUS A380-800 | 좌석번호 Seat Number | 42H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